



[해설] 두산그룹 인프라코어·건설 매각 추진 03



Economy

코스피	↑	2138.05 (+107.23)	코스닥	↑	735.38 (+42.23)
금리 (미국 3년)	↓	0.860 (-0.01)	환율 (원·달러)	↓	1207.20 (-8.80) (16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위)와 이스타항공 항공기

/각사

발 빠는 HDC·애경

아시아나-이스타 M&A, 불시착?

관건은 위약금 소송

코로나 악재 '승자의 저주' 우려
항공업계 인수합병 포기 가능성

현산, 아시아나 적자에 '재검토'
제주항공도 일정 무기한 연기돼

항공업계 인수합병(M&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결국 모두 '엑시트 플랜(탈출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두 개의 M&A가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을 맺었고, 제주항공도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양사 모두 당초 밝혔던 인수 계획에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당시 올해 4월까지 국내외 기업결합신고 등 모든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주식매매 계약 체결 이후 최종 인수가액 545억원의 잔액인 430억원을 지난 4월 29일 전액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해외 기업결합신고의 지연 등을 이유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당사자들

이 합의하는 날로 사실상 최종 딜 클로징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M&A 일정이 차질을 빚자, 업계에서는 한 때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 최대한 유리한 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두 M&A 모두 인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 위한 전략 실행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업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덩치를 키울 경우 자칫 '승자의 저주'에만 빠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세종대 경영학과 황용식 교수는 "현대산업개발이 원래 인수 의지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여러 명분을 쌓아 빠져나오려는 게 아닌가 싶다. 인수 무산에 따른 위약금은 일부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향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수순으로, 일부러 시간 끌기 작전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제주항공도 체불임금 250억원 등을 명분삼아 인수를 안 하려 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엑시트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M&A가 무산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의 입장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이후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업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제주항공은 당초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상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수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에 있어 이스타홀딩스 측에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은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각각 약 2500억원, 119억원을 납입한 상태다.



서울 강남구 HDC 본사 모습.

/연합뉴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봇물

잘 접혀야 이긴다... 폴더블폰 삼국지

삼성 8월 '갤럭시 폴드 2' 공개
화웨이 하반기 '메이트X2' 출시
모토로라 개선된 '레이저2' 준비

올해 하반기에는 폴더블(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신제품들을 대거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초기 불거졌던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까지 낮춘 모델이 등장하며 대중적인 폼팩터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작년과 비슷하게 삼성전자, 화웨이, 모토로라의 3파전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월 온라인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폴드2'를 공개한다. 출시 시기는 9월로 예상된다.

갤럭시 폴드2는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다. 펼쳤을 때 화면은 기존 갤럭시 폴드(7.3인치)보다 커진 7.7인치로 될 것으로 추측된다. 화면을 접었을 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화면도 기존 4.6인치에서 6.23인치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Z플립에 사용된 UTG(초박막강화유리)를 사용하며, 폴더블폰 최초로 방수·방진 기능을 넣어 내구성을 높였다. 카메라는 후면에 인덕션 형태로 4개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폴드2 렌더링 이미지



메이트 X



레이저

갤럭시 폴드2에 삼성전자 폴더블폰 최초로 S펜을 탑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2와 함께 '갤럭시 Z 플립' 5G 모델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4G(LTE) 모델을 출시한 바 있다. 갤럭시 Z 플립은 6.7인치로 화면을 접으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다. 접었을 때 1.1인치의 화면을 통해 날짜와 시간, 간단한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이어 자사 최초의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선보인 화웨이도 꾸준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메이트 X를 출시한 이후 올해 2월 기존 제품을 보완한 '메이트 Xs'를 공개했다.

올 하반기 출시될 메이트 X2는 기존 화웨이 폴더블 폰 화면이 밖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 아닌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이와 동시에 펜을 탑재해 폴더블 폰의 사용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카메라는 전면에 2개, 후면에 4개 등 총 6개가 장착된다. 화웨이는 지난 2월 유럽 지식재산권국(EUIPO)에 인폴딩 화면과 펜을 탑재한 폴더블 폰 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올해 초 폴더블 폰 '레이저'를 출시한 모토로라도 하반기 '레이저2' 출시할 계획이다. 전작(6.2인치)보다 화면 크기가 6.7인치로 커지고 5G를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메라 성능과 디자인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구난로봇 살피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전시된 구난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北, 경고 3일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한 지 19개월 만에 사라진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한 것은 김영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담화를 낸 지 3일 만이다. 김영정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담화에서도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군당국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의 경우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해 북한은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이날 오후 5시 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 청사는 개성공단 내 과거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